

포항시, 'APEC AI센터' 유치 박차... AI 국제 리더십 강화

국제협력 경험 등 수행 적합 평가
아태이론물리센터 운영 강점도
개발협력형 국제기구로 구체화

포항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
지능(AI) 협력과 정책을 총괄하는 상
설 국제기구인 'APEC AI센터' 유치
에 본격 나섰다.

APEC AI센터는 지난해 APEC 정
상회의를 계기로 AI 협력체계 구축이
공식화되면서 추진되는 국제기구로,
AI 정책·기술 개발 지원과 산업 기반
AX 실증 지원, 국제협력 및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국제협력 경험과 산업·연
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APEC AI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기구 운영 경험 역시 강점
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시는 1996년 APEC 정상회의
를 계기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이론물



지난해 12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AI센터 포항 유치 비전 선포식' 모습.

리센터를 25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해 오며 아시아태평양권 국제기구 거
점 도시로서 역량을 입증해 왔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아시
아·태평양 지역 19개 회원국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 국은
APEC 회원국과 중복돼 향후 협력 기
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
터 평의회에서는 14명의 평의원이
APEC AI센터의 포항 설립 필요성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적 공감대
도 확대되고 있다.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등 산업 기
반 AX 실증 역량을 비롯해 포스텍, 한
동대학교,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글로벌 교육·연구기관을 통한 AI 인재

양성 체계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포항시는 A
PEC AI센터를 AI 후발국 역량 강화
를 지원하는 '포항형 개발협력(ODA)
형 국제기구'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외부 지원과 역량 축적, 자립 기반 형
성, 지속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A
I 개발협력 모델이다.

시는 AI 역량이 부족한 APEC 회원
국을 대상으로 ▲연구자·학생 파견 ▲
현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
질적 지원 사업을 핵심 기능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포스텍, 한동대학교, 아시아태평
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과 협력해 AI 인력 파견 확대와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신규 AIOD
A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
설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t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부산관광공 '숙박세일 페스타 봄편' 참여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봄 시즌 국내
여행 수요 확대를 위해 '2026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봄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
인의 하나로 추진된다. 공사는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할인 쿠폰을 매일 오전 10시 선
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총 4종으로, 1박 상품의 경우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할인쿠폰', 2만원 이
상 7만원 미만 결제 시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연박 전용 쿠폰은 14만원 이상 결
제 시 '7만원 할인쿠폰', 5만원 이상 14만원
미만 결제 시 '5만원 할인쿠폰'이 적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403억 투입해 조선업 AI 전환 (2030년까지)

초거대 산업 AI 연구 지원사업 선정
올해부터 UNIST와 연구개발 착수
조선 기술자 제조지식 AI로 체계화

울산시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
발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
대 산업 인공지능 연구 지원 사업' 공
모에 최종 선정돼 2030년까지 국비
285억원을 포함한 총 403억원을 투입
한다고 밝혔다.

초거대산업 AI는 공정별로 개별 AI
를 개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산
업 전반을 아우르는 파운데이션 모델
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대규모 데이터
로 사전 학습해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울산시는 주관 기관인 울산과학기술
대학(UNIST)과 함께 올해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
PU) 기반 구축과 조선업 특화 AI 파운
데이션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며 2030년까지 조선업 현장 전반의
수십 개 이상 과업에 대한 인공지능 전
환(AX) 실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조
선 숙련 기술자의 제조 지식을 AI로 체
계화해 지속 가능한 기술 전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일정 단
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울
산형 소버린 인공지능 집적 기반 조성'
사업도 중앙 정부와 연계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일부터 4일간 주
개최지 김해시를 포함한 경남 16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김해시

김해시, 23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경남 16개 시·군서 열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3
일부터 4일간 주 개최지 김해시를 포함
한 경남 16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김해에서는 24일 김해종합운동장 개
회식을 시작으로 육상·축구 등 8개 종
목이 진행된다. 2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객을 맞이 위해 김해시는 교육청·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
며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장 안전 점검은 지난 3월 이미
완료했다. 소방·전기 분야 점검과 노

후 시설물 개보수를 마쳤으며 가설 텐
트·컨테이너·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시설물도 경기 시작 전 설치를 마칠 예
정이다. 모든 경기장에는 의료 인력을
배치해 부상 등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
응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개·폐회식을
대비해 경찰·소방 인력과 자원봉사자
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경기장별 주
차 공간 확보와 순환 셔틀버스도 운영
한다.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
으로는 정기 지도·점검과 친절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주)티씨엠에스 공장 착공

벤처투자 선순환 성과 가시화

경북도는 지난 10일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서(주)티씨엠에스 공장 기공식
을 열고 벤처기업 성장 기반 확충에 나
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
부지사를 비롯해 경산시, 유관기관, 기
업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 사례는 경북도가 추진 중
인 '발굴-육성-투자' 벤처 지원 구조
가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대
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주)티씨엠에스
는 2020년 3월 설립 이후 현재 30여 명
규모로 성장한 기술 기반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장비를 비롯해
차세대소재인 폴리이미드 분리막까지
아우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

기업 1000+'에 선정됐으며, 2023년에
는 한국예탁결제원 주관 'K-Camp 데
모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G-star 밸리'와 'G-star
펀드'를 연계한 벤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티씨
엠에스는 지역산업협력 R&D펀드 20
억원과 경북행복기업 혁신벤처펀드
10억원 등 총 4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
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240
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도의 벤처 지원 사업 6개를
통해 약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
원받으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투자
가 찾아오는 지역' 조성을 목표로, 유
니콘 기업 5개 이상 육성을 위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울주군, 90억 투입해 대운산 여가복지 조성

야영장·경관광장 갖춘 복합 공간

울산울주군이 온양읍 운하리 1299번
지 일대에 야영장과 경관광장을 갖춘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운산 여가복지 조성사업'의 총사
업비는 89억 9000만원으로, 야영장 26
억원, 경관광장 63억원이 각각 투입된
다. 야영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동해고속도로 온양I

C와 인접해 접근성이 높다.

야영장은 9637㎡ 부지에 24면 규모
로 조성된다. 목재 데크 기반의 테크캠
핑장 15면, 자갈캠핑장 2면, 대운산 전
망을 즐길 수 있는 테크캠핑장 7면
으로 구성된다.

7890㎡ 규모의 경관광장은 3개 테마
공간으로 나뉜다. 놀이마당, 숲속탐방
로·편백나무길·수국원으로 이뤄진 숲
속힐링마당, 운동공간과 광장으로 구
성된 입구광장이 각각 조성된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창원시

'하노버 메세'서 中企 진출 지원

창원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Han
nover Messe) 2026'에 참가해 관내 중소기
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고 밝혔다.

하노버 메세는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미
래 제조 기술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산업 기술 박람회다. 79회차를 맞는 울
해 박람회에는 60개국, 3500개사 이상이 참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영역은 ▲자동화·디지털화 ▲에너
지·산업인프라 ▲연구·기술이전으로 구성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제2기 로컬 100' 최종 선정

경주시는 신라문화제와 양동마을, 국립경
주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
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에 최종 선
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주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
원의 가치와 문화관광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
굴하고 육성해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
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체계 개편

김해시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
례'를 '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
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지급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인상된
다. 첫째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
원,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